

【논문】

## 암스트롱의 ‘사태’와 박스터의 ‘측면’ 이론\*

김희정

【주제분류】 현대 영미 분석 철학, 분석적 형이상학

【주요어】 사태, 예화, 보편자, 결핍된 특수자, 측면, 부분적 동일성

【요약문】 암스트롱은 사태를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비관계적 결합’(non-relational tie)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결합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스터(Donald L. M. Baxter)는 암스트롱의 임재적 실재론(immanent realism)을 받아들이며 다수 예화의 설명을 보완하고 ‘비관계적 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측면’에 의뢰하여 다수 예화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태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적’ 동일성에 의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그는 보편자와 그것의 측면, 개별자와 그것의 측면을 구분하고 이런 구분을 ‘형식적’ 구분으로 규정한다. 이런 식의 측면 이론으로 인해 암스트롱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다. 암스트롱은 박스터를 좇아 사태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부분적’(측면적) 동일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이 다수 예화의 문제나 ‘비관계적 결합’에 대해 암스트롱의 입장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의 이론은 ‘측면’과 ‘형식적’ 구분 등의 새로운 용어들을 부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I장에서 필자는 암스트롱의 사태에 대한 예전 입장을 제시한다. II장에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을 분석하고 III장에서 그것의 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이 그가 목표하듯이 암스트롱의 예전 입장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인다.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필자의 논문을 세심하게 읽고 불분명한 부분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해 준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문제제기 덕분에 필자의 논지를 더 명확하게 밝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다수 예화에 대한 문제나 예화관계에 대해 진전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재서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암스트롱은 세계가 사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암스트롱이 의미하는 사태는 비트겐슈타인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는 사태로 되어 있고, 실제 세계는 존립하는 사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사태를 존립하는 사태와 존립하지 않는 사태들로 나누고 전자를 ‘사실’이라고 한다. 암스트롱 역시 실제 세계는 사실들, 그의 용어로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태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존재자이고, 또 보편자의 예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사태를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비관계적 결합’(non-relational tie)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결합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스터는 암스트롱의 임재적 실재론(immanent realism)을 받아들인 가운데 다수 예화와 비관계적 결합 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그는 ‘측면’(aspects)에 의뢰하여 다수 예화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태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적’ 동일성에 의해 설명한다.<sup>1)</sup> 이런 설명에 설득당한 암스트롱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다. 그는 박스터를 좇아 사태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부분적’ 동일성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본 논문에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이 다수 예화의 문제나 ‘비관계적 결합’에 대해 암스트롱의 입장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의 이론은 ‘측면’과 ‘형식적’ 구분 등의 새로운 용어들을

1) Donald L. M. Baxter(2001).

2) Armstrong(2004a), (2004b) 참조.

부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I 장에서 필자는 암스트롱의 사태에 대한 예전 입장을 제시한다. II 장에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을 분석하고 III 장에서 그것의 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필자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이 그가 목표하듯이 암스트롱의 예전 입장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인다.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다수 예화에 대한 문제나 예화관계에 대해 진전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재서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 I. 암스트롱의 ‘사태’: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비관계적인 결합<sup>3)</sup>

암스트롱은 세계가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태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수자와 보편자가 바로 그것이다. 암스트롱은 사태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 **결핍된(thin)** 특수자로 명명된) 특수자가 속성을 가지거나, 또는 그 대신에 두 개나 그 이상의 특수자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를 가진다면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사태가 존재한다. 각 사태는 그리고 각 사태의 구성요소는 우연적인 존재자이다. 사태의 구성요소는 특수자, 속성, 관계이고 고차적인 사태의 경우에 그 구성요소는 저차적인 사태이다. 속성과 관계는 보편자이지 특수자가 아니다. (원문 강조, Armstrong, 1997: 1)

위에서 암스트롱은 사태란 특수자가 보편자를 예화한 것이라고 정

3) 『보편자와 과학적 실재론』(1978)에서부터 『사태들의 세계』(1997)에 이르기까지 암스트롱의 사태의 구성요소와 구성방식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의하고 있다. 사태는 특수자가 속성을 가지거나 특수자들이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사태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수자, 속성, 관계가 사태의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그에게 속성과 관계는 보편자이므로, 사태는 특수자, 보편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태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사태의 구성요소인 특수자와 보편자의 본성을 알아보고 나서 그것들이 사태를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해 보겠다. 먼저 특수자의 본성부터 알아보자. 사태를 구성하는 특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결핍된 특수자이다. 결핍된 특수자는 개별적인 대상으로부터 모든 속성과 관계를 우리의 사고 속에서 추상하고 남는 어떤 것이다.

여기서 ‘추상’은 특수자가 하나의 특수자인 한에서만, 그것을 고려하는, 즉 그것을 오로지 그것의 특수성 속에서만 고려하는 ‘부분적 고려’(로크)라는 정신적 행위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Armstrong 1997: 123)

결핍된 특수자는 실제로 속성이나 관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속성과 관계는 특수한 대상(들)의 그것들로 존재하고, 모든 결핍된 특수자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핍된 특수자는 별거숭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보편자와 함께 존재하므로, 결핍된 특수자는 버그만의 ‘별거숭이 특수자’(bare particulars)와 다르다고 암스트롱은 주장한다. 전자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나 관계 속에 있는 반면, 후자는 속성을 가지거나 관계 속에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sup>

암스트롱에 의하면, 사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종류의 구성요소는

4) 암스트롱은 자신의 결핍된 특수자가 별거숭이 특수자와 크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버그만은 별거숭이 특수자가 별거숭이인 채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G. Bergmann(1967) 참조. 결핍된 특수자와 별거숭이 특수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희정(2006), II장 참조.

속성이나 관계, 즉 보편자이다. 하나의 결핍된 특수자는 속성과 더불어 단항의 사태를 구성한다. 반면에 두 개 이상의 결핍된 특수자들은 관계와 더불어 다항의 사태를 구성한다.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듯이, 보편자도 결핍된 특수자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예화되지 않은 보편자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만 분리될 수 있지, 실제로는 예화된 것으로의 보편자만이 존재한다.

이제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가 어떻게 사태를 구성하는지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단항의 사태에 제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보편자라고 하면 관계가 아니라 속성을 의미한다.<sup>5)</sup>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와 더불어 사태를 구성하는 문제는 암스트롱에게 다름 아닌 예화의 문제이다. 그에게 “사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것이 어떻게 한 장소에 예화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 문제가 동일한 문제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예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만약 a가 F를 예화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a가 F인 그런 사태가 존재한다. [...] 보편자 이론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계(fundamental tie) 혹은 연관관계(nexus)는 특수자와 보편자를 사태로 결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Armstrong, 1989: 110).

그는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와 더불어 사태를 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보편자가 한 장소(결핍된 특수자)에 예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결합이 바로 사태이며 예화이다.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는 어떻게 결합하는가? 암스트롱의 답은 ‘근본적인 혹은 비관계적인 연관관계(fundamental or non-relational tie)’

5) 속성으로서의 보편자만을 다루어도 본 논문이 목표로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로서의 보편자는 속성으로서의 보편자와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관계로서의 보편자를 반드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에 의해서이다. 암스트롱이 근본적인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관계가 아니다. 구성요소인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 이외의 그것을 결합시키는 제3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적인 관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만 있다면 사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둘의 결합이 우연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비관계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결핍된 특수자를  $a$ 라고 하고 보편자를  $F$ 라고 해보자. 사태  $Fa$ 는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순서쌍이거나, 단순한 합이 아니다. 그것은 결핍된 특수자와 속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복합적이지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두 구성요소  $a$ 와  $F$ 는 어떻게  $Fa$ 라는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는가? 결핍된 특수자와 속성의 결합을 위해 암스트롱은 제 3의 구성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제3의 구성 요소가 그 둘을 결합시킨다고 설명하게 되면, 다시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제4, 제5, ...의 구성요소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3의 요소가 그 두 요소들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sup>6)</sup> 무한퇴행을 피하는 그의 해결책은 제3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결합을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합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이다.<sup>7)</sup> 암스트롱은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결합은 더 이상 설명할

6) 그는 보편자의 예화에 대한 다른 입장들은, 보편자 유명론이든 실재론이든 모두 특수자와 보편자를 관계에 의해 결합시키고자 하여 무한퇴행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에 반해 자신의 비관계적 임재적 실재론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며, 예화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특히 Armstrong(1978) I, Part II 참조.

7) G. 버그만(Bergmann)은 보편자와 별거승이 특수자의 관계를 근본적인 연관관계(fundamental tie)의해 설명한다. 그는 이 관계가 일상적인 다른 관계와 차별되는 특별한 관계라고 간주한다. 암스트롱도 보편자와 결핍된 특수자의 관계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관계는 비관계적이라는 점에서 버그만과 다르다. 버그만의 주장에 대해서는 Bergmann(1967) 참조. 버그만과 암스트롱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는 김희정(2006) 참조.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사태를 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떤 관계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서 생각하게 된다. 암스트롱은 사태의 구성요소들이 또 하나의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반대한다. 그는 그들의 '결합'이 어떤 다른 존재자에 의한 결합이 아니므로 비관계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의 해결책은 사태를 보편자와 결핍된 특수자로 이루어진 결합물이나 복합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일체로 보는 것이다. 사태를 구성하는 보편자와 특수자를 오히려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 즉 그에게 Fa가 일차적인 것이고, a와 F는 사고 속에서만 분리될 수 있다.

어떻게 사태를 일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암스트롱에 의하면, 보편자는 특수자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태는 완결된 존재자이고,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는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이 사태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못한다. 사태는 다른 사태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결된 것이지만, 그 구성요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암스트롱과 같이 사태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 즉 예화를 근본적인 관계로 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존재자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암스트롱 이론뿐 아니라 다른 경쟁적인 이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sup>8)</sup> 따라서 예화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암스트롱 이론의 결정적인 결합은 아니다. 그러나 예화를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암스트롱의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연관관계는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보편자가 전적으로 다수의 장소에 예화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박스터는 '측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8) 예화의 관계에 대한 모든 이론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 이론들 중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이론이 가진 전반적인 설명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좌용(2005), 266-278쪽; 김희정(2006), 1장 참조.

## II. 박스터의 ‘사태’: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적 동일성<sup>9)</sup>

### 1. 암스트롱의 입장 변화

암스트롱은 박스터의 ‘측면’ 이론에 영향을 받아 예화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다. 즉 그는 박스터를 좇아 예화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적’ 혹은 ‘부분적’ 동일성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로 인해 예화 관계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개별자는 우연적인 존재자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그것과 유사한 어떤 다른 것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보편자 또한 우연적인 존재자이다. 그것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대상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보편자의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나는 보편자의 예화에 대해 마음을 바꿨다. 전작에서 나는 예화를 특수자와 보편자의 우연적인 관계의 문제로 간주했다. [...] 특수자가 속성 보편자를 예화하는 데 연루된 것은 연루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부분적** 동일성[...]이라는 점에 그[Baxter]에 의해 설득당했다. 이것으로 인해 나는 예화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견지하게 되었다(원문 강조, Armstrong 2004b: 46-7).

이처럼 암스트롱은 박스터의 예화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들 간에 차이가 있다. 박스터는 예화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에 암스트롱은 그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제부터 필자는 예화의 관계가 과연 필연적인가 라는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박스터의 설명이 과연 암스트롱의 다수 예화가 모순된다는 반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문제삼고자 한다.

9) 박스터의 영향을 받아 바뀐 암스트롱의 사태에 대한 입장이다.



암스트롱은 이제 사태를 결핍된 특수자와 보편자의 비관계적인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는 박스터를 따라 사태를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적’ 동일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태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예전 입장을 더 보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측면’ 이론에 의한 다수 예화의 모순 해결과 예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

### (1) 박스터의 ‘측면’ 이론

박스터는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 어떤 점에서 복합적이며 또 다른 점에서 단일하다고 한다. 개별자와 보편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합적인 단일체라는 것이다.

하나의 단일한 것을 복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을 다르지만 수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별자뿐 아니라 보편자도 단일한 것이다. 그 양자 모두 그것들이 상이한 장소에 전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개별자는 그것이 예화하는 모든 보편자들 덕분에 복합적이고, 보편자는 그것을 예화하는 모든 특수자들 덕분에 그러하다. 그것들이 단일한 것이라면, 이 복합성은 상이한 측면들을 갖는 문제이다 (Baxter, 2001: 453-4).

개별자가 복합적인 것들로 구성된 단일한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별자는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이며, 다른 존재자들과 수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단일체이다. 예를 들어, 이 수선화는 특정한 형태, 질량, 노랑 ... 등등의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복합적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성들은 모두 수적으로 동일한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단일하다. 또 그것은 저 수선화, 저 개나리와 수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단일체이다. 박

스터는 개별자뿐 아니라 보편자도 복합적인 단일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보편자가 단일하다는 것은 보편자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그에게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합적인가? 보편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편자의 ‘측면’은 어떤 것인가? 우선 개별자의 ‘측면’부터 알아보자.

박스터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의 한 개별자}를 바로 그 개별자의 ‘측면’이라고 한다.<sup>10)</sup> 예를 들면, 이 수선화는 노랑, 형태, 질량 등의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저 개나리도 마찬가지로 노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선화에 대해 노랑을 가진 것으로서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저 개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랑을 가진 한에서의 이 수선화}는 전체로서의 그 수선화의 한 ‘측면’이다. 또한 {특정한 모양을 가진 한에서의 이 수선화}는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어떤 식으로 고려한 것으로서의 개별자}가 바로 그 개별자의 ‘측면’이다. 다시 말해 개별자의 경우 그것의 ‘측면’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의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고려한 한에서의 보편자}가 바로 그 보편자의 ‘측면’이다. 보편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장소에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한에서의 보편자를 그것의 ‘측면’이라고 나는 부르고 있다. 저곳에 있는 한에서의 보편자는 다른 측면이다. 그것들 간의 구분은 ‘측면적인’ 구분이다. 확실히 나는 측면들이 단순히 지각자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Baxter, 2001: 452).

노랑을 예를 들어 박스터 식으로 보편자의 ‘측면’을 설명해 보자. {이 수선화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노랑의 한 ‘측면’이다. {저 개나리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노랑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 수선

10) 이제부터 개별자나 보편자의 ‘측면’을 기술할 때 편의를 위해 ‘{ }’를 사용하겠다.

화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과 {저 개나리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다른 장소에 있으므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측면들은 수적으로 동일한 노랑이다.

박스터는 측면을 어떤 의미에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부분은 표준적으로 우리가 부분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구성의 이론을 동일성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면 측면을 부분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표준적인 개념에 의하면, 부분들은 모두 서로서로 수적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그것들이 구성하는 전체와 수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측면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서로서로 수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전체와도 동일하다(Baxter, 2001: 453).

측면과 단일체를 ‘부분’과 ‘전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표준적인 의미에서의 부분과 전체가 아니다. 표준적인 의미에서 부분들은 실제로 서로서로 다른 존재자이며, 또 그것이 구성하는 전체와도 실제로 다른 존재자이다. 그러나 보편자의 ‘부분’과 ‘전체’는 실제로 다른 존재자가 아니다. {이 수선화에 있는 것으로의 노랑}과 {저 수선화에 있는 것으로서의 노랑}은 수적으로 동일한 노랑이다.

그는 보편자와 그것의 측면간의 구분은 실제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인 것도 아닌,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 형식적인 구분은 단일한 대상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의한 생겨나는 구분이다.<sup>11)</sup>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지각자에 의존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개별자로부터 어떤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의 그 개별자를 고려하는 것은 순수하게 지각자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으로서의 보편자를 고려하는 것 또한 지각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 실제적 구분과 정신적 구분 이외에 형식적 구분을 도입한 사람은 스코투스(Scotus)다. 박스터는 스코투스로부터 ‘형식적 구분’이라는 용어만 빌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형식적’ 구분은 바로 ‘측면적’ 구분을 의미한다. Baxter(2001), p.452 참조.

그는 측면들은 단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측면들 간의 구분은 실제적인 구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들은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2) 다수 예화의 문제 해결

암스트롱은 보편자가 시공에 예화된 채로만 존재한다는 임재적 실재론을 옹호한다.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노랑이라는 보편자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이 수선화, 저 수선화, 저 개나리 등 시공에 예화되어 존재한다고 한다.<sup>12)</sup> 이 수선화, 저 수선화, 저 개나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자에 노랑은 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랑이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한 존재자가 전체로서, 분리된 여러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박스터는 ‘측면’에 의퇴하여, 이 반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보편자와 그것의 측면들은 수적으로 동일하나 구분된다는 것이 그의 측면 이론의 핵심이다. 그것에 의하면 보편자는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지만, 측면은 그렇지 않다. 보편자 노랑은 전적으로 이 수선화와 저 개나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수선화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그 장소에만 있지 다른 장소에 있지 않다. 또한 {저 개나리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이 수선화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이 수선화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과 {저 개나리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은 노랑의 다른 측면이다. 이 노랑들은 측면적으로만 구분되며 수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한 것이 한 장소에 전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도 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 필자가 ‘노랑’, ‘형태’ 등을 보편자의 예로 제시하는 것은 그것들이 진정한 속성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편의에 따른 것이다. 암스트롱은 이런 술어는 진정한 속성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이 진정한 속성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니므로 ‘노랑’ ‘형태’ 등을 속성이라고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3) 예화의 관계에 대한 해명

이제 박스터가 예화에 대해 암스트롱이 해명하지 못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자. 박스터는 특수자, 보편자, 측면에 의해 예화를 설명한다.

[예화라는] 비관계적 연결관계는 보편자의 측면과 특수자의 측면 간의 동일성이다. 만약 측면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관계적인 연결관계는 특수자와 보편자의 '부분적 동일성'이다. [...] 측면은 그것들이 공통으로 갖는 부분이다(Baxter, 2001: 453).

그는 예화가 '보편자의 측면과 특수자의 측면 사이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위에서 '특수자'(particulars)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특수자가 아니라 암스트롱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충만한(thick) 특수자**이다. 충만한 특수자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채로의 특수자를 말한다.<sup>13)</sup> 즉 통상적으로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특수자이다. <이 수선화가 노랑다>는 사태는 이 수선화가 노랑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랑이라는 한에서의 이 수선화}와 {이 수선화에 있는 것으로서의 노랑}이라는 측면 간의 동일성이다. 앞에서 개별자와 보편자의 측면은 각각의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측면적 동일성은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 동일성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a는 Y임>이라는 사태를 박스터 식으로 설명해보자.

이 수선화 a는 (Y, F, M, ... 등)의 속성으로 구성됨  
 저 수선화 b는 (Y, G, N, ...) 등의 속성으로 구성됨  
 저 개나리 c는 (Y, H, O, ... 등)의 속성으로 구성됨  
 보편자 Y는 (a, b, c, ... 등)에 존재함

$$\text{노랑} = Y$$

13) Armstrong(1989), p.60; pp.74-76 참조.

a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 = F  
 b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 = G  
 c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 = H  
 10g의 질량 = M  
 20g의 질량 = N  
 5g의 질량 = O

박스터에 의하면 a는 {Y인 한에서의 a}, {F인 한에서의 a}, {M인 한에서의 a}, 등의 측면들로 되어 있는 개별자이다. b는 {Y인 한에서의 b}, {G인 한에서의 b}, {N인 한에서의 b}, 등의 측면들로 되어 있는 개별자이다. Y는 {a에 있는 한에서의 Y}, {b에 있는 한에서의 Y}, {c에 있는 한에서의 Y} 등의 측면들로 되어 있는 보편자이다. <Ya>라는 사태, 즉 ‘a가 Y를 예화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개별자 a와 보편자 Y의 측면상의 동일성이다. 즉 a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 {Y인 한에서의 a}라는 측면과 Y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 {a에 있는 한에서의 Y}라는 측면의 동일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Y인 한에서의 a}라는 개별자의 측면과 {a에 있는 한에서의 Y}라는 보편자의 측면의 동일성이라는 것이다. 예화는 개별자의 어떤 측면이자 보편자의 어떤 측면이다.

### Ⅲ. 측면 이론과 암스트롱의 문제들

#### 1. 측면 이론의 문제점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이하다. 개별자의 측면은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가진 한에서의 그것}이다. 보편자의 측면은 {어떤 장소에 있는 한에서의 그것}이다. 예를 들어 {노랑인 한에서의 이 수선화}가 이 수선화의 측면이고, {이 수선화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이 노랑의 측면이다. 개별자의 측면은 그것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고려하

면 파악된다. 보편자의 측면은 그것이 있는 장소를 고려하면 파악된다. 따라서 ‘전체’, 즉 ‘부분’이 속하는 단일체로부터 ‘부분’, 즉 측면을 어떻게 분리하는가 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개별자와 보편자는 다른 종류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별자가 복합적인 단일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나, 보편자의 경우는 그것이 왜 복합적이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보편자의 다수의 예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측면에 의뢰해야 하므로 박스터가 보편자를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하나의 사례 속에서만 존재하는 보편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암스트롱은 보편자가 다수의 장소에 예화될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박스터의 측면 이론을 받아들이는 중에도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내가 보는 바 특수자의 기능은 그 특수자의 비관계적인 속성인 (일부 또는 전부가 구조적인) 단칭적 보편자를 ‘관류’하는 것이다. [...] (비록 그것이 단 하나의 속성만을 집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산자가 되는 것이 특수자의 본질이고, (비록 그것이 오직 한번 예화된다 하더라도) 예화하는 것이 보편자의 본질이다(Armstrong, 2006: 211).

대부분의 보편자는 여러 장소에 예화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예화되는 보편자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측면과 보편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곧 그의 측면 이론의 핵심이 되는 측면과 보편자 간의 ‘형식적’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스터는 보편자와 그것의 측면들 간의 구분, 또한 측면들 간의 구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 노랑이라는 보편자는 {a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 {b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 {c에 있는 한에서의 노랑}, ... 이 모든 측면 각각을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복합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측면들이 수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단일체이다. 이 측면들이 수적으로 동일한 것은 측면들의 구분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에서만 예화되는 보편자는 그런 형식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자와 그것의 측면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의 문제 해결의 핵심부분이므로 박스터는 측면과 보편자를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에만 예화되는 보편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보편자를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만 약 보편자의 측면 하나와 보편자가 동일시될 수 있다면, 보편자를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sup>14)</sup>

보편자의 측면과 연관된 또 다른 문제는 보편자의 측면들을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sup>15)</sup> 박스터는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를 복합적인 것의 단일체로 간주한다. 개별자를 단일체로 간주하는 것에는 근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일하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편자의 경우 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동일한 단일체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는 우리가 어떤 존재자를 엄밀하게 고려하는 방식과 느슨

14) 심사자 중 한 분은 박스터는 보편자를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암스트롱이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그 심사자가 지적하듯이 암스트롱은 대부분의 보편자가 복합적이라고 주장한다(Armstrong, p.67 참조). 그런데 암스트롱은 속성이 복합적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자가 복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박스터의 의미에서 보편자가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박스터는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각각이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표준적인 부분 전체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 전체(복합적인 단일체)이고, 각각을 구성하는 '부분들'(측면들)로 간주한다.

15) 심사자 중 한 분은 필자의 이 질문이 엉뚱하다고 지적한다. 박스터는 단지 보편자의 측면들은 '그것들이 측면인 한에서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점을 통해서 보편자가 어떻게 많은 것들 사이에서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가 가진 한에서의 노랑}과 {b가 가진 한에서의 노랑}이 형식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트롭 이론가들이 있다. 암스트롱의 다수 예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 중에는 보편자에 대한 반실재론자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당연히 예화된 보편자들이 다른 장소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적으로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보편자의 다수 예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게 고려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방식이 올바른가는 고려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는 개별자를 둘로서 고려하는 것이 엄밀하고 철학인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로 보는 것이 그런지에 대한 원리가 없다고 한다.<sup>16)</sup> 그리고 나서 그는 보편자 유명론자들이 통상적으로 엄밀한 동일성과 느슨한 동일성으로 간주하는 것을 뒤집어 보라고 한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측면으로 분리된 것을 실제적인 존재자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구성된 복합적인 것을 실제적인 존재자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박스터는 측면과 유사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철학자에 대해 잠시 언급한다. 브렌타노의 ‘accidents’, 카스타네라의 ‘guises’ 파인의 ‘qua objects’가 자신의 측면과 유사한 것이라고 그는 파악한다. 그는 어떤 측면들은 엄밀하게 (수적으로, 실제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측면 유사물들이 엄밀하게 (수적으로, 실제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그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스타우트(G. F. Stout)도 측면 유사한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실제적인 존재자로 본다. 그는 이 책상의 모양, 질량 등 개별자에 속하는 속성을 특수자로 보고 그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그는 이러한 ‘추상적인 특수자’의 동일성을 엄밀한 동일성으로 간주하고 그것들로 구성된 보편자의 동일성을 느슨한 동일성으로 간주한다. 즉 그에게 보편자는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특수자들로 구성된 분배적인 단일체(distributive unity)이다.<sup>17)</sup> 그에 의하면 특수한 속성의 동일성이 엄밀한 동일성이고, 분배적인 통일체의 동일성이 느슨한 동일성인 것이다. 보편자의 동일성이 엄밀한 것이냐 느슨한 것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측면’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단일체’라는 점에서 박스터와 스타우트는 일치한다. 스타우트는 ‘분배적인 단일성’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박스터도 스타우트와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만, 방법 면에서는 유사하게) 측면의 동일성을 엄

16) Baxter(2001), pp.455-6 참조.

17) G. F. Stout(1921-22) 참조.

밀한 (수적인, 실제적인) 동일성으로 보는 것이 원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는 암스트롱의 임재적 실재론이 옳다고 하는 전체 하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력있게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보편자의 실제적 동일성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박스터의 입장이 이런 것이라면, 그의 이론은 암스트롱의 입장을 결코 보완해주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용어로 암스트롱의 입장을 재서술하는 데 그친다.

## 2.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 (1) 다수 예화의 모순을 암스트롱 설명 이상으로 해결하는가?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측면과 보편자 간의 ‘형식적’ 구분에 의해 다수의 예화의 문제에 제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측면’과 ‘형식적’ 구분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뢰하여 설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지, 암스트롱의 해명에서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간 것이 아니다. 다수 예화에 대한 암스트롱의 설명과 박스터의 설명을 비교해보자.

#### <다수 예화에 대한 암스트롱의 설명>

- (a) 결핍된 특수자 a에 예화된 F는 결핍된 특수자 b에 예화된 F와 구분된다.
- (b) F는 보편자이며, 모든 보편자는 예화된 보편자이다.
- (c) 보편자는 각 사태에 전적으로 존재한다.
- (d) 보편자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암스트롱의 위와 같은 설명에 대해 “어떤 존재자가 어떻게 동시에 다른 장소에 분리되지 않고 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개별자는 다른 장소에 분리되어 전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보편자는 다르다는 것 이외에 다른 답변을 주지 않는다.

박스터의 설명은 어떤가?

<다수 예화에 대한 박스터의 설명>

- (a') {a에 있는 한에서의 F}와 {b에 있는 한에서의 F}는 구분된다. (a와 b를 고려함으로써)
- (b') 그것들은 보편자 F의 상이한 측면들이다. (보편자와 측면에 대한 정의에 의해)
- (c') 보편자의 측면들은 형식적으로 구분되나 수적으로 동일하다. ('형식적' 구분의 개념에 의해)
- (d') 따라서 F의 측면들은 형식적으로 상이하지만, 실제로 동일하다.
- (e') {a에 있는 한에서의 F}, {b에 있는 한에서의 F}, ... 등등과 형식적으로 구분되나 수적으로 동일한 보편자 F는 예컨대 a와 b라는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수적으로 동일하나 측면적으로(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 (f') 그러므로 동일한 F가 다른 장소 a와 b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박스터 설명의 핵심은 측면들 간의 그리고 측면과 보편자 간의 '형식적' 구분이다. 즉 보편자의 측면들은 보편자는 수적으로 동일하지만 측면적으로 상이하다. 측면과 보편자 간의 구분이 실제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아닌 '형식적인' 구분이라고 박스터는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 구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스코투스에게서 그 용어만 빌어왔을 뿐이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형식적' 구분은 바로 측면상의 구분이고,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실제로 (수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c')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하지 않는다.

필자가 II-1에서 지적했듯이, 소위 측면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왜 수적으로 동일한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면, 그의 이론은 암스트롱의 설명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a에 있는 것으로 F}라는 측면은 다름 아니라 암스트롱 식으로 표현하면 a에 예화된 보편자이다. 그가 위의 설명 (c')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지 않는다면 암스트롱의 (d)에 대해 더 해명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c')는 단지, 예화된 보편자들이 서로 수적으로 동일하나 예화하는 결핍된 특수자들이

다르므로 구분된다는 암스트롱의 주장을 측면들과 보편자 간의 ‘형식적’ 구분이라는 단어로 재서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측면 이론은, 예화된 보편자들을 ‘측면들’이라고 명명하고 그것들이 보편자이므로 수적으로 동일하다는 암스트롱의 주장을 ‘측면적’(형식적) 구분과 수적인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보편자의 다수 예화의 문제에 대해 암스트롱 이상으로 답하고 있지 않다.

## (2) 비관계적 결합에 대해 암스트롱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예화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암스트롱은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를 예화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관계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했다. 박스터 역시 예화가 원초적이며 근본적이라고 한다.

특수자와 보편자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지될 수 있다. 그것은 교차하여 고려된 부분적 동일성이다. (어떤 고려하에서) 특수자의 측면이 되는 바로 그 측면이 (다른 고려하에서) 보편자의 한 측면이다. 이것이 예화이며, 비관계적인 연결관계이다. [...] 예화의 경우, 개별자의 측면들 간의 동일성[개별자]과 보편자의 측면들 간의 동일성[보편자]은 공유하는 측면에서 교차한다. 교차하는 동일성들의 각각은 다른 것만큼 원초적이며 근본적이다(Baxter, 2001: 456).

위에서 박스터는 예화를 개별자의 측면과 보편자의 측면 간의 동일성이며, 예화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이라고 한다. 예화가 원초적이며 근본적이라는 하는 점은 암스트롱과 동일하며 예화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대해 그도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예화의 관계를 자신의 측면 이론에 의해 재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 3. 결론

암스트롱은 예전에 사태를 결핍된 특수자가 보편자를 예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스터의 논문에 영향을 받아 후기에 그는 사태와 예화를 충만한 특수자와 보편자에 의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는 사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개별자와 보편자의 ‘부분적’, 즉 측면적 동일성이라고 한다.

[결핍된] 특수자는 수많은 상이한 보편자를 관류하는 것이고 보편자는 수많은 상이한 특수자들을 관류하는 것이다. 보편자를 예화하는 [결핍된] 특수자는 두 종류의 단일체의 교차점, 즉 부분적 동일성의 한 점이다. [...] [충만한] 특수자와 보편자는 서로 교차한다. [...] 그러나 만약 박스터가 옳다면, 우리가 사실이나 사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전체론적이지 않은 부분적 동일성**이다(2004a: 141).

암스트롱이 ‘부분-전체론적이지 않은 부분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스터의 ‘측면적’ 동일성을 말한다.

암스트롱이 박스터의 측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려면 보편자를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박스터의 입장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이론을 옹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측면 이론은 암스트롱의 다수 예화에 대한 문제나 예화관계에 대해 진진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스터의 측면 이론은 그것이 설사 정확적이라 하더라도 암스트롱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서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투 고 일: 2012. 04. 16.  
 심사완료일: 2012. 05. 08.  
 게재확정일: 2012. 05. 10.

김희정  
 한신대학교 철학과

## 참고문헌

- 김희정, 「비관계적인 임재적 실재론에 대하여: 암스트롱의 보편자 이론 비판」, 『철학적 분석』, 제14호, 2006, 95-115쪽.
- 이좌용, 『존재론 연구 I: 보편 논쟁』, 철학과 현실사, 2005.
- Armstrong, D. M., *Universals and Scientific Realism I,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Universals: An Opinionated Introduction*, Boulder, San Francisco, London: Westview Press, 1989.
- \_\_\_\_\_, *A World of States of Affai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How Do Particulars Stand to Universals?”,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1, ed. Dean Zimmerman, Oxford: Clarendon Press, 2004a, 139-154.
- \_\_\_\_\_, *Truth and Truthma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b.
- \_\_\_\_\_, “Particulars Have Their Properties of Necessity”, in *Universals, Concepts and Qualities: New Essays on the Meanings of Predicates*, ed. P. F. Strawson and Chakrabarti,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05, 239-47.
- \_\_\_\_\_, “Reply to Rissler”,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4(2), 2006, 211-12.
- Baxter, Donald, “Instantiation as Partial Identit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3), 2001, 449-64.
- Bergmann, Gustav, “Facts and Things”, in his *Realism: A Critique of Brentano and Meinong*,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7.
- Stout, G. F., “The Nature of Universals and Proposition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 X, 1921-22.

ABSTRACT

## Armstrong’s States of Affairs and Baxter’s Theory of Aspects

Kim, Hee-Jeong

Armstrong claimed that a state of affairs is a thin particular’s instantiation of a universal and its connection is non-relational and contingent. However, he changed his mind about the contingency of the connection because of Baxter’s theory of aspects. Donald L. M Baxter’s intention i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ultiple instantiation of an immanent universal and to reduce the mystery of the fundamental relation of instantiation in terms of ‘aspects’. He makes a formal distinction between a universal and its aspects as well as a formal distinction between a particular and its aspects. He takes into account a state of affairs in terms of the aspectual identity of a universal and a particular. Armstrong accepts Baxter’s theory of aspects and considers a state of affairs as a ‘partial’(aspectual) identity of a particular and a universal. He now holds that the connection of instantiation is necessary.

I argue, in this paper, that Baxter’s theory of aspects is not better than Armstrong’s former view on states of affairs in solving the problem of multiple instantiation and in taking into account the non-relational tie of instantiation. I point out that Baxter is merely adding new conceptions such as ‘aspects’ and ‘formal’ distinction. I present Armstrong’s former view on states of affairs in Part I,

analyze Baxter's theory of aspects in Part II and point out its internal problems in Part III. I also argue that Baxter's theory of aspects does not help to make Armstrong's view clearer as it intends since it does not provide further accounts with respect to multiple instantiation and the fundamental relation of instantiation. I argue that it is merely redescribing Armstrong's accounts with different terms such as 'aspects' and 'formal' distinction, instead of providing further accounts.

**Keywords:** states of affairs, instantiation, universals, thin particulars, aspects, partial identity